編輯者 註

지난 9월 3~4일 德裕山 國立公園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93 전국자연공원대회의 일환으로 개최된바 있는 "새로운 國立公園像과 管理方向의 모색"을 테마로 한 自然公園세미나 發表 論文을 아래에 싣는다.

第14回 自然公園세미나 論文

-새로운 國立公園像과 管理方向의 모색-

〈基調講演〉

自然과 人間

自然과 같이 살자

李 恒 寧

(弘益大名譽教授)

우리 人間의 自然에 대한 태도에는 세가지 類型이 있다. 첫째는 自然順應的 태도요, 둘째는 自然對立的 태도요, 셋째는 自然敵對的 태도다. 順應的 태도는 주로 東方農耕社會의 自然觀이요, 對立的 태도는 주로 西方商工社會의 自然觀이요, 敵對的 태도는 주로 中東遊牧社會의 自然觀이다. 이는 風土가 人間의 思惟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風水사상이 강하다. 風水사상은 地理가 人間의 운명과 관계 있다는 사상인데, 風水라는 것은 藏風得水에서 온 말인데 藏風得水 할 수 있는 地理的 환경이 좋은 곳이요, 自然的 환경 중에서 특히 國都 住居(陽宅) 墓地(陰宅)의 위치와 환경이 국가와 가족이나 자손의 운명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風水說은 본래 中國에서 발생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新羅末에 道詵國師가 이것을 익혀서 우리나라 風水사상의 元祖가 되었다. 高麗太祖 王建이 道詵國師의 風水說을 믿어서 風水사상이 高麗때에 성행되었으며 朝鮮朝에도 이어내려왔고 지금의 한국인의 意志 가운데 無意識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風水說의 요점은 氣사상이다. 氣라는 것은 精神과 物質을 다같이 包含한 宇宙의 原動力으로서 그것을 生氣라고도 하는데

宇宙萬物은 동일한 生氣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한 生氣는 서로 感應하게 되어 自然的 운명과 社會的 운명이 동일하다고 생각되었다. 風水說은 일종의 豫言사상을 포함하게 되는데 그것이 讖緯사상이다. 自然的 地理的 條件이 人間的 歷史的 운명까지를 決定 짓는다는 風水사상은 하필 東洋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西洋에서도 히포크라테스, 보당, 몬테스큐, 헤르델, 헤겔, 마르크스 등이 風土가 人間에 주는 영향을 고찰하였으며 地政學같은 學問도 생겼다. 이제 東洋의 風水讖緯사상이나 西洋의 風土사상을 문제삼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自然환경이 人間의 운명과 관계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다.

自然환경 즉 風土的 立場에 서서 世界를 보면 거기에는 3個의 類型을 볼 수가 있다. 첫째는 太平洋 印度洋으로 부터 多量의 雨氣와 北方大陸으로부터 冷氣가 季節的으로 교체하는 季節風的 風土類型이니 이에는 韓國, 中國, 日本, 印度, 印度支那 등이 속한다. 이 季節風的 風土의 특색은 그 濕潤性에 있고 따라서 農耕生活에 적합한 生活기반을 이루고 있다.

둘째는 발칸, 이탈리아, 피레네의 諸半島가 突出한 것을 비롯하여 복잡한 海岸線을 그리면서 地中海와 大西洋에 임해 있는 海洋性的 風土類型이니 이에는 그리스, 로마,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 속한다. 이 海洋性的 風土의 특색은 그 交通의 편리에 있고 따라서 商工生活에 적합한 生活기반을 이루고 있다.

셋째는 東洋과 西洋의 中間에 끼어 海洋에서 먼관계로 雨氣가 적어서 沙漠과 草原이 연속된 沙漠的 風土類型이니 이에는 中東, 아라비아, 아프리카北部 이란, 中央아시아, 蒙古 등이 속한다. 이 沙漠的 風土의 특색은 그 乾燥性에 있고 따라서 農耕이나 商工보다는 遊牧生活에 적합한 生活기반을 이루고 있다.

東洋의 季節風이 가져오는 濕潤性은 植物의 成長을 왕성케 하는 自然의 큰 혜택이 된다. 그런 까닭에 이 地帶에서는 自然順應的인 農耕生活이 발달되었다. 西洋의 海洋性 風土地帶에서는 交通이 편리하여 自由活動이 可能하여 自然에 얽매여서 忍從할 必要도 없고 또 구태여 自然과 대항할 必要도 없어 自然과는 상관없이 오직 人間의 能力에 의지하는 商工生活이 발달되었다. 또 東洋과 西洋의 中間인 中東의 沙漠地帶에 있어서는 自然은 惠澤이 아니라 害惡이다. 따라서 이 地帶에는 自然에 順應하는 固着的 農耕生活과는 달리 自然과 투쟁하고 水草를 따라 이동하는 遊牧的 集團生活이 발달되었다. 이리하여 東洋에는 自然을 尊重하는 自然主義사상이 발달되어 自然全體를 神聖視하는 汎神論的 사상이 形成되었고 西洋에서는 自然보다 人間을 尊重하는 人間主義사상이 발달되어 人間의 多樣性에 근거하는 多神論的 사상이 形成되었고 中東에서는 自然을 格下시켜 그 自然과 對抗하기 위하여 社會集團을 尊重하는 社會사상이 形成되었고 集團을 統率하기 위하여 一神論的 사상이 形成되었다.

自然中心的인 東洋은 自然과 조화를 이루면서 共生하였고 人間中心的인 西洋은 自然과 對立하여 自然은 順應하거나 敵對하기 보다는 그것을 利用하였고 社會中心的인 中東사상은 自然과 투쟁하여 그것을 征服하고저 하였다.

東洋에서는 自然은 神으로서 人間의 上位에 存在하고 西洋에서는 自然은 人間과 同位에 存在하지만 中東에서는 自然은 神의 下位에 存在하여 神의 支配를 받는 것

으로 생각한다. 東洋의 自然觀에서는 自然은 그대로 尊重되어야 하므로 自然破壞가 있을 수 없지만 西洋의 自然觀에서는 自然은 그대로 尊重되기 보다는 利用되어야 하므로 적당한 加工이 이루어져 自然破壞의 可能性이 있으며 中東의 自然觀에서는 自然은 害惡이기 때문에 敵對視되고 征服되어야 할 對象이므로 自然破壞의 可能性이 크다.

東方農耕社會 西方商工社會 中東 遊牧社會의 代表的 민족은 中國人, 그리스인, 유태인이다. 그들의 神話形態를 보면 그들의 自然觀을 더욱 잘 理解할 수 있다.

中國人에는 盤固神話가 있다. 이 宇宙는 처음에 天地區別이 없는 混沌狀態였는데 마치 鷄卵과 같았다. 그런데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듯이 盤固라는 巨人이 出生하자 混沌한 것이 밝은것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고 어두운 것은 아래로 내려와 땅이 되었는데 盤固는 자라서 커지고 이에 따라 天地도 커졌다. 그러자 盤固가 죽었는데 그 死體에서 自然萬物이 발생했다. 즉 盤固의 숨결은 바람과 구름이 되고 그 소리는 벼락이 되고 그 左眼은 太陽이 되고 그 右眼은 달이 되었으며 그 手足과 몸둥이는 山岳이 되고 흘린 피는 河川이 되고 살은 흙이 되었고 그 수염은 별이 되고 몸의 털은 草木이 되고 이와 뼈는 鑛物과 岩石이 되고 흐르는 땀은 비가 되었다.

그리스神話에서는 世界의 처음에 카오스(混沌)가 탄생하고 다음에 大地가이아와 에로스(愛)가 나오고 카오스는 피닉스(不死鳥)女神을 낳고 가이아는 天空 우라소스를 낳았다. 天空 우라소스와 大地 가이아 사이에 크로노스가 탄생하고 크로노스는 레이아와 結婚하여 三女神과 二男神을 낳았는데 이들이 탄생하자마자 코로노스는 자기 배속에 삼켜 버렸다. 막내아들 제우스가 탄생하자 레이아는 그를 크레타섬의 山中 바위속에 숨겨 놓았다. 제우스가 成長하자 크로노스와 싸워 이기고 올림포스山의 支配神이 되었다. 人類가 탄생하자 푸로메티우스는 불을 훔쳐서 人間에게 주어 人類는 불을 利用하게 되었으나 제우스는 노하여 푸로메티우스의 간장을 독수리가 파먹게 했으며 판도라라는 女人을 創造하여 모든 재앙이 들어있는 큰상자와 같이 푸르메티우스의 동생 에피메티우스에게 보냈다. 판도라가 상자의 뚜껑을 열자 온갖 재앙이 튀어나와 판도라가 급히 뚜껑을 닫으니 「希望」만이 상자속에 갇혀 있게 되었다.

유태인의 神話는 舊約에 나와 있다. 太初에 여호아 하나님이 계셔서 첫날에는 光明을 둘째날에는 하늘을 세째날에는 물과 땅과 바다와 草木을 네째날에는 日月과 별을 닷새날에는 魚類와 鳥類를 엿새날에는 動物과 人間을 創造하시고 이렛날에는 쉬시었다.

人間이 창조된 경위는 하느님이 흙으로 당신을 닮은 모양을 만들어 여기에 숨을 불어 넣어 男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잠자는 동안에 그 갈비뼈를 빼어서 女子 이브를 만드셨다. 아담과 이브는 낙원인 에덴동산에 살았다. 하느님은 그들을 祝福하여 生殖하고 繁昌하여 땅에 차서 萬物을 服從시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브가 사탄(악마)인 뱀의 유혹에 빠져 하느님이 금한 선악과를 먹고 또 아담에게도 먹여서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고 타락하여 그 죄값으로 인간은 죽게 되고 女子는 임신의 고통을, 男子는 노동의 고통을 맛보게 되었다.

아담과 이브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農耕을 하였고 아벨은 遊牧을 하였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祭物은 받지 않고

아벨의 祭物만 받으시므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아담의 子孫은 많이 번창하였는데 큰 洪水가 나자 노아의 方舟를 탄 사람만이 살아남았는데 노아의 方舟는 山 꼭대기에 있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자손이 에집트에서 고생하자 모세가 나와서 그 민족을 에집트에서 탈출시켜 시내山에서 하느님으로부터 十誡命을 받고 一神敎를 完成했다.

이상에서 우리는 세가지 類型의 神話를 보았다. 첫째 中國神話는 自然과 人間의 一體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自然은 어떤 超越的인 存在가 創造한 것이 아니다. 無爲而化로 저절로 混沌이 생기고 그 混沌이 盤固를 出生하여 天地를 만들고 盤固가 죽어서 그 身體가 萬物이 되었다고 하니 이는 天地萬物이 同一한 生命體라는 사상이다. 그러므로 東洋에서는 事物을 對立的으로 생각하지 않고 相互補完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것이 陰陽사상을 形成했다. 陰陽사상은 陰과 陽이 서로 對立하여 排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相對方의 存在를 前提로 하여 共存하는 相補關係로 陰이 없으면 陽도 없고 陰이 있어야 陽이 있다는 相生사상이다. 自然과 人間사이 人間과 人間사이는 이러한 陰陽 調和사상으로 共生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天地人一體사상은 人間으로 하여금 自然에 順應하는 수 밖에 없게 만들어 自然保護 사상을 낳았지만 한편 지나치게 自然에만 依存하고 人間의 努力을 過小評價하는 宿命論에 떨어지는 폐단도 낳았다.

이에 비해서 그리스神話는 神의 世界가 바로 人間의 世界와 다름없어 人間世界의 生存 競爭의 모양이 바로 神의 世界에도 벌어지고 있다. 東洋의 神이나 中東의 神은 神秘的이고 道德的이고 謹嚴하여 世俗的인 면모가 없는데 비해 그리스의 神들은 人間도 같은 喜怒哀樂과 人間과 같은 俗된 行動을 하여 神의 神聖性이 별로 없다. 이는 人間中心의 商工生活에 연유하는 것으로 그들은 人間과 人間과의 競爭에서 모든 것을 對立的으로 생각하게 되어 여기에 西洋의 論理學인 辨證法이 발달되었다.

마지막으로 유태인의 神話를 보면 그 唯一神사상이 自然을 無視할 가능성이 크다. 農耕生活과 달리 遊牧生活은 自然의 害惡을 集團的 移動으로 解決하였는데 그 集團의 團結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神의 絶對性으로 強調하였다. 아담과 이브가 神의 誡命을 어긴것으로 타락되고 가인의 農耕的 祭物을 神이 拒否하므로써 철저한 遊牧的 性格을 固守하였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神話는 어떠한가. 우리에게는 檀君神話가 있다. 桓國하늘나라의 桓因하느님의 아들 桓雄님이 三千의 神들과 같이 白頭山에 내려오셔서 神市倍達國을 세우시어 弘益人間의 理念을 펴시고 臨時로 人間으로 變하시어 곰에서 女人이 된 熊女와 혼인하시어 檀君님을 낳으시고 그 檀君님은 朝鮮을 開國하는 최초의 임금님이 되시어 1千 500년동안 다스리시다가 箕子가 王이 되므로 阿斯達에 숨어서 山神이 되셨다고 되어 있다.

檀君神話의 특색은 山을 중요시한데에 있다. 白頭山은 桓雄이 下降하여 神市를 세운곳이요, 또 檀君이 出生한 곳이다. 그리고 檀君은 나중에 山神이 되셨다고 한 것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山을 존중하였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山은 自然을 代表하는 것으로 山이야 말로 가장 自然스러운 自然이다.

山을 존중하는 것은 그리스神話나 유대神話도 같다. 그리스神話의 무대는 올림포스山이요, 유대인을 구원한 十誡命을 받은 곳도 시내山이다. 그러나 올림포스山에서

는 神들의 피비린내나는 覇權 競爭이 있었고 시내山은 그저 一過性으로 지나간 곳이요 우리의 白頭山처럼 永遠히 神聖한 開國의 터전은 아니다.

우리는 檀君神話에서 山을 神聖化 하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 白頭山은 偉大한 自然의 가장 거룩한 象徵이다. 白頭山은 우러러 參拜하여야 할 聖地요, 決코 征服되어야할 高山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國立公園이 대개 山을 中心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國立公園을 聖地라고 생각하고 國立公園의 山에 오르는 것을 聖地參拜의 氣分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檀君神話의 또 하나의 특색은 하느님이라 하여도 하느님의 一方的 뜻으로만 일을 遂行시키지 않고 반드시 相對方의 所願이나 努力을 前提로 한다는 것이다. 桓雄님이 天上에서 地上으로 내려오신것도 하느님이 뜻만이 아니라 桓雄님 自身의 뜻이었고 곰이 女人이 된 것도 桓雄님의 一方的 意志가 아니라 곰의 所願을 土臺로 하고 곰의 努力이 合해서 비로소 女人이 되었고 桓雄님과 熊女가 혼인한 것도 桓雄님의 一方的 意志가 아니라 熊女의 간절한 소망이 그 土臺를 이루고 있다. 이는 모든 것을 陰陽調和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自然을 保護하는 것은 덮어놓고 自然을 그대로 放任하는 것이 아니다. 人間의 努力을 過信하여 自然에 挑戰하는 것이 正道가 아니듯이 自然의 威力을 過信하여 人間의 努力을 포기하는 것도 決코 正道가 될 수 없다. 우리가 自然을 사랑하고 自然과 共生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子女를 사랑하고 子女와 共生하는 것과 같이 自然의 順理를 존중하면서 또한 人間의 끊임없는 사랑의 努力을 아끼지 않는데 있다.

우리는 自然을 保護하기 위하여 먼저 自然의 소리를 듣고 自然의 所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自然의 理致를 깊이 깨닫고 自然의 順理대로 自然이 살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다. 여기에 人間爲主의 생각이나 人間의 便利 人間의 利益만을 위한 自然管理는 있어서는 아니된다.

自然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自然을 放任하거나 人間의 干涉을 排除하는 것이 아니라 自然이 自然 대로 살 수 있도록 人間의 自然에 대한 愛情과 自然에 대한 돌봄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 檀君神話가 神과 人間의 共同努力으로 理想世界를 이룩하듯이 自然保護도 自然과 人間의 共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東洋의 自然觀이 자칫하면 自然을 그대로 放任만 하고 人間의 努力을 無視하는 傾向이 있는데 비해 우리 檀君神話는 自然保護가 完全하려면 人間의 努力도 必要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 檀君神話는 東洋의 自然主義에 기초를 두면서도 西方의 人間主義와 中東의 社會思想을 다 包含하고 있다. 新羅의 孤雲 崔致遠先生이 우리 固有의 風流道 속에 儒佛仙三敎가 다 包含되었다고 하였듯이 檀君神話에 나타난 우리의 自然觀은 東洋의 汎神論 西洋의 多神論 中東의 一神論을 모두 包含하여 桓因하느님이란 唯一神을 모시면서 桓因·桓雄·檀君의 多神을 믿으며 모든 山에 山神이 계시므로 汎神을 믿는다. 우리는 決코 排他的이 아니고 包容的이며 東洋·西洋·中東의 自然觀을 다 具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自然保護憲章에 人間은 自然에서 태어나 自然의 혜택에서 살고 自然으로 돌아간다는 自然出生사상 自然혜택사상 自然回歸사상이 바로 우리의 傳統사상에 유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